



4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개최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번 2길 6번지

도, 14개 시·군과 ‘건강한 동행’

민선8기 첫 도·시·군 정책협의회

기업유치·교육협력·지방소멸 대응 등 협력방안 논의
지속적인 협치 위해 연 2회 정책협의회 정기개최 합의

민선8기 전북 단체장들이 취임 후 첫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29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심민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장(임실군) 등 14개 시장·군수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도·시·군 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민선8기 동안 도와 시·군이 우선적으로 협력할 기업유치, 교육협력, 지방소멸대응, 인사교류

등 네가지 안건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양질의 기업유치를 위해 타깃기업 발생시 도와 시군이 협력해 부지공급, 인허가 처리 등을 윈스톱으로 지원하고,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정부 정책에 시군과 함께 TF팀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으며, 교육협력을 위해 시·군과 지역교육지원청·대학 간 선도사업 발굴에 도가 적극 지원하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등 지역 특화인재 양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날로 심해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기금 적극 활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동 대응, 고항사탕기부제 시행 공동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도·시·군이 상호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한 정기 인사교류도 대상 직위와 규모를 구체화해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추가로 전북연구원에서 도 민선8기 시·군의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 정책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시·군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은 이와 같은 협력 안건에 대한 상생협력협약에 상호 서명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 민선8기동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로 의지를 다졌으며, 지속적인 도·시·군 협치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채로

운 전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하나돼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오늘 건강한 동행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시장·군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머리를 맞대 정책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고창유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갯벌 보전 및 관리의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고창군에 건립될 필요성에 서로 공감하고 도·시군이 유치 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장(회장 심민 임실군수) 지역인 임실군을 찾아 심진강 르네상스를 표방한 민선8기 임실군의 비전과 임실치즈테마파크의 발전계획을 현장에서 공유해 임실군 상황을 현실감 있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협치를 다짐하는 이날 협의회의 의미를 더했다. /김경수 기자

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기금 적극 활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동 대응, 고항사탕기부제 시행 공동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도·시·군이 상호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한 정기 인사교류도 대상 직위와 규모를 구체화해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추가로 전북연구원에서 도 민선8기 시·군의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 정책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시·군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은 이와 같은 협력 안건에 대한 상생협력협약에 상호 서명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 민선8기동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로 의지를 다졌으며, 지속적인 도·시·군 협치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채로

“희망 전북교육으로 염원에 보답”

전북교육감직 인수위 활동 백서 발간

제19대 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이하 인수위) 활동을 담은 백서가 발간됐다.

이에 따르면 인수위 백서에는 주요 활동일지에서부터 분과별 활동 취임준비위원회 활동, 인수위 운영예산 결산 내역, 인수위 활동관련 보도 내용 등이 담겼다.

백서는 △제1차 인수위원회 발족 △제2차 인수위원회 활동 △제3차 인수위원회 10대 제안 △제4차 공약 이행계획 수립 △제5차 당선인 활동 기록 △제6차 인수위원회 활동을 마치며 등 총 6장 407페이지로 구성됐다.

3장에 담긴 10대 제안은 공존의 미래 위한 ESG 교육 선도 참여력에서 협력 증진 정책으로 전환, 혁신학교의 성과 확산 후 미래학교로 전환, 전북형 미래학교 선도 모델 창출, 도교육청 3국 체제로 조직 개편, 차별없는 인사 혁신, 학생중심의 기본은 수업혁신, 조속한 교육인권조례 제정과 교육인권센터 확대 개편, 강력한 교육협력 거버넌스 실행, 차별없는 무상유아교육 신속 실행, 문예체 교육의 내실화 등으로, 지난 7월 25일 서교육감에게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새로운 전북교육은 미래·책임·안전·자치·협력·공동체 6대 분야 33개 주요 정책으로, 73개



세부 추진과제를 실행할 계획이다.

먼저, 미래분야에서는 교실혁명·전북형 미래학교 운영·미래교육캠퍼스 설립 등을 책임분야에서는 기초학력 책임시스템 구축·전북에듀페이 지원 등이다.

이어 안전분야에서는 학교폭력 통합관리시스템구축·권역별 안전체합관 조망·행복가족 ON! 따뜻한 밥상 지원 등을 자치분야에서는 전북학생회 설립·학교업무 통합지원센터 설치, 교직원 인사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미래분야에서는 교육청-지자체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지역과 상생하는 폐교 활용·All in one 진로진학상담을 공동분야에서는 학생회와연수 추진·국제교류 확대 지원·전북교육인권센터 운영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

이종민 인수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인수위 백서는 미래교육의 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인수위가 준비한 여러 제안이 현실화 돼 서거석 교육감이 성공한 교육감으로 기억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기념사를 통해 “교육감직 인수위에 참여해 준 인수위원, 실무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은 물론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실력과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 소통과 협치의 전북교육, 도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전북교육으로 도민 여러분의 교육기쁨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서 기자



전북도와 시군 정책협의회가 29일 임실 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왼쪽)와 심민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시장군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 유일 장애인 고용창출 전문연수원 건립

도-장애인고용공단-전주시, 원활한 추진 위해 협약
덕진구 성덕동 일원에 건립... 2027년 준공·개원 목표
고용 전문가 양성·직무역량 강화 등 전문 시설로 운영

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전라북도에 장애인 고용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원이 들어설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연수원이 단순한 교육기관에 그치지 않고 다

양한 장애인 고용 관련 사업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연수원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복지 허브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단에서도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우리 지역 장애인들의 고용창출이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조항현 공단 이사장은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전북발달장애인·맞춤형 통합센터를 개소한 이후 또다시 전라북도에 장애인 고용을 위한 교육연수원을 건립하게 돼 무척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전라북도가 장애인 고용복지 교육거점 도시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아픈 기억을 간직한 전주 자립원 부지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애인 고용 및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의 집적화로 고용창출을 이끌어내고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은 오는 2027년 준공과 개원을 목표로 현 자립원 부지인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일원에 건립될 예정이며 △장애인 고용 전문기 양성 △장애인 직무역량 강화 △장애인 고용 사업주 교육 등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 교육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 △△ △△ △△

그리고 반딧불이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2022. 8. 27.토 - 9. 4.일

muu
축제 문의 063-324-2440
www.firefly.or.kr